

한·독 문형의 비교설정 시론

민춘기(전남대¹⁾)

1. 머리말

문형 연구의 목표와 관련하여 문법연구라는 이론적인 측면과 언어학습에서의 활용이라는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주로 교육적 활용을 염두에 둔 연구가 많으며, 특히 외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문형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어교육에서의 활용을 위한 문형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독일어의 문형을 비교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광숙(1994), 이점출(2000), 이점출(2001)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들에서의 문형 비교는 주로 목표어인 독일어 문형에서 출발하여 모국어인 한국어의 문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 글에서는 연구방법을 약간 달리하여, 최근 들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 점차 중요한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호문화 학습' interkulturelles Lernen!¹⁾이라는 구상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응용해 보려고 한다(Liedke, 1999: 552). 모국어인 한국어의 문형 설정을 바탕으로 목표어인 독일어 문형의 설정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이때 언어학습을 염두에 두다 보니 비교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두 언어의 기본문형을 먼저 설정해보고 하위문형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어의 문형에 대해 다루는데, 기존의 문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문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하위 분류해 보겠다. 이

* 독일언어문학과 강사·유럽지역학연구소 연구원

**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세 분의 선생님께 감사한다.
1) 상호문화 학습이라는 구상에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학습과정과 성찰을 필요로 한다(Larcher, 1991: 75 ; Rieder, 1992: 2쪽에서 재인용). 이를 외국어 자체의 학습에 적용한다면, 모국어를 대한 성찰 및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안에 착안하여 한국어와 독일어의 문형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어서 3장에서는 독일어의 문형을 다시 설정해 보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때 역시 기존의 문형에 대한 논의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국어인 한국어의 문형과 관련시켜 새로운 문형설정을 시도하기로 하겠다.

2. 한국어의 문형

한국어의 문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강은국, 1993: 11). 여기서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문형에 대한 연구내용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형 설정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2.1. 기존의 문형

한국어의 기본문형 설정에 대한 초기의 종합적인 논의는 천기석(1970)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논제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그 당시의 학교문법 교과서에서 통일성 없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의 기본문형²⁾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³⁾ 네 가지 갈래에는 ‘주요성분’만으로 구성된 기본문형, ‘주요성분+수식성분’의 기본문형, ‘주요성분+수식성분+독립성분’의 기본문형, ‘주요성분+수식성분+독립성분+기타’의 기본문형 등이 포함된다(천기석, 1970: 106). 이 가운데 여기서는 주요성분만으로 구성된 기본문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본문형은 모든 문장들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수식성분이나 독립성분 등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관규, 1993: 92).

2) 기본문형이란 “수많은 개개의 구체적인 문장 가운데서 추상해낸, 구체적인 같은 종류의 문장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생성해낼 수 있는, 필수적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문장구조 유형을 공식화한 틀”이다(강은국, 1993: 24쪽).

3) 여기에 사용된 조사자료는 고등문법 12권, 중등문법 13권 등 모두 25권으로 교과서마다 기본문형에 대한 각기 다른 저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성분만으로 구성된 기본문형은 다시 다섯 종류의 유형으로 묶어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겠다(천기석, 1970: 106-109).

(1) 유형 1

- a. 동작문: 무엇이 어찌한다 (학생이 공부한다.)
- b. 형성문: 무엇이 어떠하다 (학생이 착하다.)
- c. 판단문: 무엇이 무엇이다 (나는 학생이다.)

이 유형에서는 기본문형을 3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문형의 명칭을 동작문, 형성문, 판단문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⁴⁾

(2) 유형 2

- a. 무엇이 무엇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 b.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 c. 무엇이 어찌한다. (기차가 움직인다.)
- d.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고양이가 고기를 먹는다.)
- e. 무엇이 어떠하다. (호랑이는 사납다.)

유형 1과 비교해 볼 때, (2b)는 판단문을 부인하는 부정문이고 (2d)는 동작문에 목적어가 들어간 문으로서, 이들을 각각 하나의 기본문형으로 설정함으로써 5개의 문형이 설정되었다.⁵⁾

(3) 유형 3

- a. 주어+서술어: 무엇이 어찌한다. (별이 반짝인다.)
- b. 주어+서술어: 무엇이 어떠하다. (달이 밝다.)
- c. 주어+기움말⁶⁾+서술어: 무엇이 무엇이다. (물이 얼음이 된다.)
- d. 주어+목적어+서술어: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학생이 글을 읽는다.)

4) 이 유형의 기본문형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앞에서 말한 25권 중 4권이다.

5) 이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1권이다.

6) '보어'의 우리말 용어.

여기서는 다시 4개의 문형으로 줄었는데, 이는 부정문을 따로 기본문형으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⁷⁾ 나머지 문형은 대체로 앞선 두 유형과 유사하며, 주어, 서술어, 기움말, 목적어 등의 문법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유형 4

- a. 주부+서술부 (꽃이 핀다. 꽃이 아름답다. 이것이 꽃이다.)
- b. 주부+보어+서술어 (물이 얼음이 된다. 물이 얼음과 비슷하다.)
- c. 주부+목적어+서술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
- d. 주부+서술어+서술어 (꽃이 피게 된다. 꽃이 아름답지 않다.)
- e. 주부+보어+서술어+서술어 (물이 얼음이 되어 간다.)
- f. 주부+목적어+서술어+서술어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이 유형에서는 문형이 6개로 늘어났는데,⁸⁾ 이는 (4d-f)에서처럼 보조용언을 독립성분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를 주부로, 서술부와 서술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5) 유형 5

- a. 주어+서술어
무엇이 어떡한다 (봄이 왔다.)
어떠하다 (날씨가 따뜻하다.)
무엇이다 (봄은 계절이다.)
- b. 주어+목적어+서술어
무엇이 무엇을 어떡한다 (꽃이 나비를 부른다.)
- c. 주어+보어+서술어
무엇이 무엇이 된다 (구름이 비가 된다.)
무엇이 아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다.)
무엇과 같다 (구름이 솜과 같다.)
- d.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여기다 (내가 그 이를 친구로 삼았다.)
무엇이라고 일컫다/부르다 (국민들이 그 분을 국부라고 부른다.)

7) 앞에서 말한 25권 중 1권의 교과서에서 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8) 앞에서 말한 25권 중 1권의 교과서가 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목적어와 함께 목적보어를 취하는 동사들을 위해 따로 하나의 기본문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4개의 기본문형 아래에 속할 수 있는 문형들을 하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⁹⁾ 그 외에 수식성분, 독립성분 등이 포함된 기본문형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밖에 천기석(1970)에 이어 곧바로 발표된 성광수(1971)의 논문에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변형-생성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어 문형을 기본문형과 변형문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성광수, 1971: 7-32). 여기서는 기본문형을 크게 4개의 문형으로 묶고 서술어를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는 것을 토대로 하위 분류하여 전체 6개의 문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주어, 서술어(동사/형용사), 보어, 목적어 등을 중심으로 기본문형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는 기본문형 설정에 필수적인 성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의 문장구조라는 현상에 대한 견해 차이 및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용어나 기본문형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형 설정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2. 새로운 시도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문형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문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 문형을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 이때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어 기본문형에 관한 논의들을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문형 설정을 시도하기로 한다. 또한 문형 설정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화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우선 한국어 문형 설정에서 대부분 다루어지고 있는 ‘주어+서술어’ 문형을 기본문형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그리고 여기서 하위 분류될 수

9) 이 유형을 제시한 교과서는 2권이다.

10) 초기의 문형 연구에서는 ‘무엇이’,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최현배(1956), 이명권/이병호(1966), 이은정/한인석(1966), 고영근(1969) 등), 차차 ‘주어’와 ‘서술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있는 문형으로 ‘주어+자동사서술어’,¹¹⁾ ‘주어+형용사서술어’, ‘주어+명사서술어’ 등을 들 수 있다. 이 하위 문형들은 각각 기본문형으로 설정되기도 하지만,¹²⁾ 이들이 주어 하나만을 취하는 서술어라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한 단계 더 추상화할 수 있다.¹³⁾ 특히 정인승(1968), 김혜숙(1998) 등에서는 ‘주어+서술어’라는 기본문형을 설정하고 여기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서술어가 하나의 보어를 취하는 문장들을 대표하는 기본문형으로 ‘주어+보어+서술어’를 설정할 수 있다. 김민수/이기문(1958), 이승녕(1967), 이용주/구인환(1967), 김민수(1968), 조항규(1988), 김병균(1998) 등에서 보어를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취하는 성분으로 간주하여 이를 위한 기본문형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서술어의 품사를 중심으로 다시 이를 하위 분류하여 ‘주어+보어+동사서술어’, ‘주어+보어+형용사서술어’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¹⁴⁾

한국어 문형 연구에서 대체로 하나의 기본문형으로 설정하는 ‘주어+목적어+서술어’ 문형은 견해 차이가 가장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를 하나의 독립된 기본문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때 격 목적어를 대격, 여격 등으로 구분하는 문제와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 ‘-을/-를’의 유무에 따라 단순히 목적어가 결정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¹⁵⁾

부사어의 경우에 문장의 필수성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은 편이다. 기본문형을 필수성분을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에 기대어, 필수적으로 쓰인 부사어들을 위한 기본문형인 ‘주어+부사어+서술어’를 하나의 기본문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⁶⁾ 예를 들어 ‘영미가 공장에 다닌다.’라는 문장에서 부사어 ‘공장에’를 빼면 비문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부사는 필수적 성

- 11) 자동사의 경우에 국어의 능동:피동, 주동:사동 관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남순(1984)를 들 수 있다.
- 12) 이에 대한 보기는 최현배(1956), 김민수/이기문(1958), 이명권/이병호(1966), 이은정/한인석(1966), 고영근(1969), 정교환(1974), 한길(1980), 노은희(1999) 등이다.
- 13)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로 이승녕(1967), 이용주/구인환(1967), 정인승(1968), 강복수/유창균(1969), 조항규(1988), 김혜숙(1998) 등을 들 수 있다.
- 14)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인승(1968), 김민수(1968) 등을 들 수 있다.
- 15) 여격에 대해서는 배해수(1977), 배희임(1987)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목적어 구분에 관한 문제는 이관규(1993)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관광부, 2000: 29-81).
- 16) 필수적 부사어를 위한 기본문형 설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김성화(1972), 조항규(1988), 박영순(1990)을 들 수 있다.

분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김혜숙, 1998: 17).

마지막으로 한국어 서술어 가운데 주어 외에 두 개의 필수성분을 취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하나의 기본문형을 설정할 수 있겠다. 이때 출현 가능한 성분을 중심으로 ‘주어+목적어+(목적어/부사어/보어)+서술어’라는 기본문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출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어+목적어+목적어+서술어’,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등으로 하위 분류해 볼 수 있겠다.¹⁷⁾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문형을 보다 추상화하여 새롭게 설정해 본 한국어의 기본문형 및 기본문형을 하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한국어의 새로운 문형

문형 1. 주어 + 서술어

- 1-1. 주어 + 자동사서술어 (별이 반짝인다.)
- 1-2. 주어 + 형용사서술어 (달이 밝다.)
- 1-3. 주어 + 명사서술어(-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문형 2. 주어 + 보어 + 서술어

- 2-1. 주어 + 보어 + 동사서술어 (구름이 비가 된다.)
- 2-2. 주어 + 보어 + 형용사서술어 (물이 얼음과 비슷하다.)

문형 3.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

문형 4.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준희가 교실에 있다.)

문형 5. 주어 + 목적어 + {목적어/보어/부사어} + 서술어

- 5-1. 주어 + 목적어 + 목적어 + 서술어 (필호가 서희에게 물을 준다.)
- 5-2.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그는 나를 바보로 여긴다.)
- 5-3.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농부가 낫을 선반에 놓는다.)

이상에서 보여주는 문형은 그 동안의 한국어 문형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다. 하나의 문장에 나오는 문장성분을 어떤 성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문형을 통해 한국어 문장을 대부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기서는 교육적 활용을 염두에 두

17)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는 이승녕(1967), 강복수/유창균(1969), 배희임(1987), 이근영(1987), 조항규(1988), 김혜숙(1998) 등이다.

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용어와 문형 설정에서 필수적인 품사인 동사, 형용사, 명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3. 독일어의 문형

독일어에서는 주로 결합가 이론을 적용하여 문형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동안 독일어권의 학자들에 의해 설정된 문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이를 토대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 문형을 관련시켜 기본문형을 새롭게 설정하고 보다 많은 문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위문형을 분류해 보기로 하겠다.

3.1. 기존의 문형

먼저 Brinkmann(1971)은 문장구조를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자리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독일어의 문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Brinkmann, 1971: 533쪽 이하).

(7) Brinkmann이 제시한 독일어 문형

- A. Peter schläft.
- B. a. Franz sucht seinen Freund.
b. Das Wetter bleibt schön.
c. Er ist Kaufmann.
d. Wir helfen dir.
e. Er tritt in den Saal.
- C. a. Ich gebe dir das Buch.
b. Er beschuldigt mich des Diebstahls.
c. Er stellt das Glas auf den Tisch.
d. Ich finde dein Verhalten töricht.
e. Ich nenne dieses Verfahren eine Ungerechtigkeit.
- D. a. Er schleudert ihr den Handschuh ins Gesicht.
b. Er macht ihr das Unrecht klar.

Brinkmann은 독일어 문형을 한 자리 동사(A), 두 자리 동사(B), 세 자리 동사(C), 네 자리 동사(D) 문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하위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문형 분류는 문장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형의 기본 속성 중의 하나인 추상화를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rben(1972)의 문형에서는 일련의 전형적이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기본구조인 기본모형Grundmodell과 이른바 확장형식인 구문안Satzbaupl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본문형과 해당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Erben, 1972: 246쪽 이하). 또한 보충어를 목적어보충어, 형용사보충어, 부사보충어 등 나름대로의 설명 목적에 맞도록 세분함으로써 한국어 문형과의 비교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¹⁹⁾ 술어보족어Prädikativ²⁰⁾라는 용어를

- 18) 여기서는 주어의 특별한 위치를 고려한 점과 예문의 in den Saal, auf den Tisch 등과 같은 부사어들을 하나의 자리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9) Erben이 제시한 독일어 문형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원래는 V1, V4, V(3+adv), V(3+4+adv) 등 부호로만 표시되는데, 편의상 한글 표기도 병행한다.

- A. 한 개의 보충어를 갖는 동사
 - a. V1 : 주어+동사 (Vater schläft.)
 - ...
- B. 두 개의 보충어를 갖는 동사:
 - a. V4 : 주어+동사+4격목적어 (Katzen fangen Mäuse.)
 - ...
 - d. V3 : 주어+동사+3격목적어 (Mitschüler helfen der Frau.)
 - e. V5 : 주어+동사+진치사목적어 (Er verzichtet auf sein Recht.)
 - f. Vadv : 주어+동사+부사보충어 (Der Streit währt zwei Stunden.)
 - ...
- C. 세 개의 보충어를 갖는 동사:
 - g. V(3+adv) : 주어+동사+3격목적어+부사보충어 (Freunde klopfen ihm auf die Schulter.)
 - h. V(4+adv) : 주어+동사+4격목적어+부사보충어 (Mädchen stellen Blumen auf den Tisch.)
 - ...
- D. 네 개의 보충어를 갖는 동사
 - ...
 - b. V(3+4+adv) : 주어+동사+3격목적어+4격목적어+부사보충어 (Er schleudert ihm den Handschuh ins Gesicht.)
 -

사용한 것과 부사어(Vadv)를 하나의 보충어로 간주한 점²¹⁾은 독일어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rben의 문형에서는 술어가 필요로 하는 보충어의 수에 따라 기본문형을 설정하고, 독일어 문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하위 문형을 분류하고 있어서 한국어 문형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법적 관점의 독일어 문형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어 문형 설정에서 Erben의 입장을 보다 발전시킨 이는 Grebe(1973)이다. 그는 우선 문장을 주어와 술어 구조로 파악하면서, 주어만 있는 동사문형을 비롯하여 주어 외에 보충어를 하나 혹은 둘 갖는 문형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Grebe, 1973: 478쪽 이하). 이어서 보충어를 그것들의 특성에 따라 9개로 규정하고,²²⁾ 그것들의 조합 양상에 따라 문형을 하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²³⁾

-
- 20) 이를 위해 주격보어보충어를 취하는 동사(Vsp), 목적격보어보충어를 취하는 동사(Vop)로 표시하고 있다.
- 21) 예를 들어 다음의 문형이 이에 해당한다.
 Vadv : (Fritz schlüpft in das Kanalrohr.)
 V(4+adv) : (Mädchen stellen Blumen auf den Tisch.)
 V(3+4+adv): (Er schleudert ihm den Handschuh ins Gesicht.) 등.
- 22) 이를테면, 목적어를 4격, 3격, 2격, 전치사목적어 등으로, 부사보충어를 공간, 시간, 양태, 원인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 23) 그리하여 주어만 있는 문형 1, 주어와 하나의 보충어 갖는 문형 9, 주어와 두 개의 보충어 갖는 문형 13 등 모두 23개의 문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논의와 관련 있는 일부의 문형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Grebe가 제시한 독일어 문형

- a. 주어+술어 (Die Rose blüht.)
 b. 주어+술어+4격목적어 (Der Gärtner bindet die Blumen.)
 ...
 f. 주어+술어+동등1격 (Karl ist mein Freund.)
 g. 주어+술어+공간보충어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
 k. 주어+술어+3격목적어+4격목적어
 (Karl schenkt seiner Mutter Blumen.)
 ...
 m. 주어+술어+4격목적어+전치사목적어
 (Er verriet ihn an seine Feinde.)
 ...
 p. 주어+술어+4격목적어+목적격보어보충어

Grebe는 독일어 전치사구가 목적어 및 부사보충어의 쓰임이 있어 이를 구분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상론을 필요로 하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²⁴⁾ Grebe의 문형에서 동등1격이란 주어와 보충어가 모두 1격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어의 명사서술어 ‘-이다’에 대응시킬 수 있다. 또한 주어가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서술어와 함께 주어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어 문형과의 비교 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Grebe는 목적어와 술어라는 개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일반화된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그밖에 독일어 문형에 대한 논의로 Engel/Schumacher(1976), Tarvainen(1981), Helbig/Buscha(198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초기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문형과 보충어를 보다 확대하고 세분함으로써 독일어의 문장구조를 보다 광범위하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문형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Engel/Schumacher(1976)는 보충어를 10개로 나누고 있는데,²⁵⁾ 이는 앞에서 제시된 보충어와 유사하다(Engel/Schumacher, 1976: 21쪽 이하) 다만, 주어를 1격보충어로 표시하여 다른 보충어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문장형식의 성분을 위한 절보충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토대로 설정된 문형은 일반문형(A형) 18개와 4격목적어 갖는 문형(B형) 12개를 합하여 30개로 제시되고 있다.²⁶⁾ 여기서는 주어 없는 문장을 위한 문형을 따로 설정한

(Die Mutter macht die Suppe warm.)

...

s. 주어+술어+4격목적어+동등4격

(Karl nennt mich einen Lügner.)

....

24)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rebe(1973), 483쪽 이하 참조.

25) 여기에는 1격보충어(Nominativergänzung; E0), 4격보충어(Akkusativergänzung; E1), 2격보충어(Genitivergänzung; E2), 3격보충어(Dativergänzung; E3), 전치사보충어(Präpositionalergänzung; E4), 처소보충어(Situativergänzung; E5), 방향보충어(Direktivergänzung; E6), 병렬보충어(Einordnungseränzung; E7), 양태보충어(Artergänzung; E8), 절보충어(Ergänzungssatz; E9)이 해당된다.

점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문형의 수가 늘어난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도 문형을 보다 추상화하기 위해 개별 문형들을 보충어의 수에 따라 묶은 후에 하위 분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된 보충어로 간주된 격 목적어는 목적어보충어로, 처소보충어나 방향보충어 등 부사적 성질을 갖는 보충어를 부사보충어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독일어 문형을 연구한 Tarvainen(1981)도 동사의 결합가에 의해 채워져야 할 문장성분인 보충어와 관련하여 0가 동사부터 4가 동사까지를 제시하고 있다(Tarvainen, 1981: 102쪽 이하). 그리고 보충어가 될 수 있는 문장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보충어, 연결보충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와 부사보충어를 하위 분류하고, 목적어의 수와 보충어의 수에 따라 문형을 크게 10가지(A-J)로 설정하고 하위 문형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여기서도

26) Engel/Schumacher이 제시한 독일어 문형

- A. a. - Es taut.
- b. 0 Johanna fiebert.
- ...
- i. 08 Dieser Mann ist gefährlich.
- j. 09 Er ließ die Kinder ein Lied singen.
- k. 34 Mir graut vor dir.
- ...
- B. a. 1 Es gibt keine ideologiefreie Wissenschaft./ Mich friert.
- b. 01 Pinkus pfeift den Kaiserwalzer.
- c. 011 Sie lehrt ihn eine neue Sprache.
- ...
- f. 0136 Uli bringt dem Vater die Mappe ins Büro.
-

여기서 숫자는 보충어를 표시하며, 예를 들어 0은 주어이고 1은 4격목적어이다.

27) Tarvainen이 제시한 독일어 문형

- A. 술어: Es regnet.
- B. 주어 + 술어: Karl arbeitet.
- C. 목적어 + 술어: Mich schläfert.
- D. 주어 + 술어 + 목적어: a. 4격: Ich schreibe einen Brief.
- ...
- E. 주어 + 술어 + 연결보충어: a. 명사: Karl ist ein Mann.
- b. 형용사: Karl ist jung.

주어 없는 문형을 따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국어 문형을 바탕으로 비교 설정할 때는 이를 우선 제외하고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는 전통문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한 점 및 문형을 추상화하여 최대한 적게 설정하고 독일어의 특징적인 문장구조는 하위분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독일어 문형에서 생략 가능한 보충어까지 포함하여 다룬 대표적인 경우로는 Helbig/Buscha(1986)를 들 수 있다(Helbig/Buscha, 1986: 625쪽 이하). 이들은 보충어 자체를 세분함으로써 독일어 문장에 쓰인 성분들의 역할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²⁸⁾ 세분화된 보충어를 바탕으로 동사가 요구하는 보충어 수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10가지 문형을 설정하고, 보충어를 다시 필수보충어와 수의보충어로 구분하여 수의보충어가 포함된 문형까지 모두 97개의 문형을 제시하고 있다.²⁹⁾ 여기서는 수의보충어를 갖는 문형까지 제시함으

F. 주어 + 술어 + 부사보충어: a. 장소보충어: Karl wohnt in Berlin.

G. 주어 + 술어 + 두 개의 목적어:

- a. 4격 + 4격: Er lehrte mich Französisch.
- b. 4격 + 3격: Er berichtet mir den Vorgang.

H. 주어 + 술어 + 세 개의 목적어: a. 4격 + 3격 + 전치사격:
Der Lehrer antwortete mir nichts auf meine Frage.

I. 주어 + 술어 + 목적어 + 부사보충어: Er legt das Buch auf den Tisch.

J. 주어 + 술어 + 목적어 + 연결보충어: Karl nennt mich faul.

28) 여기서 사용된 약어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보충어; A1, A2 등으로 표시), Sn(1격 명사; 주어로서), Snp(1격 명사; 술어보충어로서), Sa(4격 명사; 목적어로서), Sap(4격 명사; 술어보충어로서), pS(전치사+명사; 목적어로서), pSA(전치사+명사; 부사규정어로서), Adj(형용사; 술어보충어로서), NS(부문장; 목적어로서), NSs(부문장; 주어로서), Infzu(zu 가진 부정형; 목적어로서) 등.

29) Helbig/Buscha가 제시한 독일어의 문형

- A. 보충어 없는 동사 문형 : V
 - a. - Es blüzt.
- B. 하나의 선택보충어 갖는 동사 문형 : V-(A1)
 - a. (Sa) Es regnet (Blüten).
- C. 하나의 필수보충어 갖는 동사 문형 : A1-V

로써 독일어 동사의 보충어 선택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충어를 너무 세분하고 수의보충어를 포함한 문형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일어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많은 수의 문형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문형 가운데 필수보충어를 갖는 동사

a. Sn Die Pflanze geht ein.

...

D. 하나의 필수보충어와 하나의 선택보충어 갖는 동사 : A1-V-(A2)

a. Sn,(Sa) Die Mutter kauft (Milch) ein.

...

E. 하나의 필수보충어와 두 개의 선택보충어 갖는 동사: A1-V-(A2)-(A3)

a. Sn,(Sa),(Sd) Die Mutter erzählt (den Kindern) (eine Geschichte).

...

F. 하나의 필수보충어와 세 개의 선택보충어 갖는 동사:

A1-V-(A2)-(A3)-(A4)

a. Sn,(Sd),(pS),(NS) Der Arzt antwortet (dem Patienten) (auf seine Frage), (daß er komme).

...

G. 두 개의 필수보충어 갖는 동사 문형 : A1-V-A2

...

e. Sn,pSA Der Arzt wohnt in Leipzig.

f. Sn,SnP Das Mädchen wird Lehrerin.

g. Sn,AdjP Die Lehrerin ist krank.

...

H. 두 개의 필수보충어와 하나의 선택보충어 갖는 동사: A1-V-A2-(A3)

a. Sn,Sa,(Sd) Der Schüler beantwortet (dem Lehrer) die Fragen.

...

I. 두 개의 필수보충어와 두 개의 선택보충어 갖는 동사: A1-V-A2-(A3)-(A4)

...

b. Sn,p1S,(Sa),(p2S) Der Referent bittet (die Zuhörer) (für diesen Zwischenruf) um Verständnis.

...

J. 세 개의 필수보충어 갖는 동사: A1-V-A2-A3

a. Sn,Sa,Sap Der Meister nannte die Frau eine gute Arbeiterin.

...

e. Sn,Sa,Sd Der Hund brachte dem Mann eine Verletzung bei.

...

g. Sn,Sa,pSA Der Lehrer legt das Buch auf den Tisch.

....

문형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형 Ga, Ge, Gf, Gg ; Ja, Jb, Je, Jg 등의 문형은 한국어 문형과의 비교 설정을 위해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3.2. 새로운 시도

한 특정한 언어를 가장 이성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적으로 작성된 사상이 한 언어의 형식적인 문법구조에 어떻게 침잠되어 있고 그것이 교신될 수 있는 내용의 기본적인 구조와 어떻게 조합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Eichinger, 1995: 209).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기술한 문법구조를 교육문법의 입장에서 다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줄고(1998)에서 독일어의 문형을 교육문법의 관점에서 다시 설정한 바 있다(민춘기, 1998: 20-109). 이때 앞서 살펴본 문형에서 제시한 보충어 분류를 바탕으로 보충어를 주어, 연결보충어, 목적보충어, 부사보충어, 문장보충어로 나누었다. 이를 토대로 독일어 문형을 크게 일곱 개(A-G)로 설정하고, 하위 분류된 보충어를 이용하여 하위 문형을 제시하였다.³⁰⁾ 독일어 문형을 한국어 문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새롭게 설정해 보기 위해 네 개의 보충어를 중심으로³¹⁾ 독일어의 기본문형과 하위 문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겠다.

(8) 새로 설정한 독일어 문형

A. 주어 + 동사

- a. 주어 + 자동사 (Peter schläft.)
- b. 주어 + 재귀동사 (Max schämt sich.)

B. 주어 + 동사 + 연결보충어 (Karl ist mein Freund./Er ist krank.)

3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춘기(1998), 67-75쪽 및 99-109쪽 참조.

31) 여기서 문장보충어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에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C. 주어 + 동사 + 목적보충어
 - a. 주어 + 동사 + 4격목적어 (Katzen fangen Mäuse.)
 - b. 주어 + 동사 + 3격목적어 (Mitschüler helfen der Frau.)
 - c. 주어 + 동사 + 전치사목적어 (Inge achtet auf ihre Schwester.)
 - d. 주어 + 동사 + 재귀목적어 (Otto wäscht sich.)

- D. 주어 + 동사 + 부사보충어 (Helga wohnt in München.)

- F. 주어 + 동사 + 보충어 + 보충어
 - a. 주어 + 동사 + 목적보충어 + 목적보충어
(Der Hund brachte dem Mann eine Verletzung bei.)
 - b. 주어 + 동사 + 목적보충어 + 목적격보어보충어
(Der Lehrer nennt den Schüler fleißig.)
 - c. 주어 + 동사 + 목적보충어 + 부사보충어
(Er stellt die Lampe auf den Tisch.)

위의 문형 가운데 문형 Aa는 한국어 문형 1-1과 대응시킬 수 있다. 문형 B의 연결보충어는 한국어의 보어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으며 1-2, 1-3 및 2-1까지도 포함시켜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어 문형 2-2는 독일어의 형용사 문형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³²⁾ 독일어 문형 C는 독일어에서 격의 쓰임을 중시하는 것을 반영하여 하위 분류하였으며, 한국어 문형 3과 대응시켜볼 수 있다.³³⁾ 독일어 문형 D는 한국어 문형 4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³⁴⁾ 독일어 문형 Fa는 한국어 문형 5-1과, Fb는 5-2와, Fc는 5-3과 대응시켜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독일어 문형 Ab의 재귀동사나 Cd의 재귀목적어 등은 독일어의 특징적인 현상을 나타내므로 하위에 분류하였다.

32) 형용사 문형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33) 한국어와 비교할 때 역시 독일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전치사목적어와 한국어의 조사의 비교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

34) 양 언어에서의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논의도 보다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4. 맺음말

문형은 전통적으로 문법기술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특히 한 언어를 외국어로 습득하고자 할 때 모국어의 문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외국어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모국어인 한국어 문형을 교육문법의 관점에 따라 설정하고 난 후, 목표어인 독일어의 문형을 새롭게 설정해 보는 것을 시도해 보았다.

한국어 문형 설정에서는 주로 초기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형을 설정해 보았다. 이때 전통적인 문법용어인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용어와 문형 설정에서 중요시되는 품사인 동사, 형용사, 명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우선 다섯 개의 기본문형을 설정하였는데, '주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및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성분을 필요로 하는 문형이 그것이다. 이어서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어만을 취하는 서술어를 자동사, 형용사, 명사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 이에 따라 문형을 하위 분류하였으며, 두 개의 성분을 취하는 문형의 경우에도 그것의 결합가능성에 따라 세 개의 하위문형을 분류하였다.

한국어 문형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형에 대한 논의를 이용하여 독일어 문형을 교육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다시 설정해 보았다. 이때 역시 전통적인 용어인 Subjekt(S), Prädikat(P), Prädikativergänzung(PE), Objektergänzung(OE), Adverbialergänzung(AE)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술어의 결합가에 따라 다섯 개의 기본문형 $S + P$, $S + P + PE$, $S + P + OE$, $S + P + AE$, $S + P + OE + OE/PE/AE$ 을 설정하였으며, 독일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격목적어, 재귀동사, 재귀대명사 등을 위한 하위 문형 및 보충어의 결합가능성에 따른 하위 문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된 문형을 중심으로 두 언어의 문형을 비교해본 결과, 각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새로 설정된 문형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의 어휘나 현대 문헌들의 자료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기서 논의된 것은

교육적 활용을 위한 문형 설정의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국 (1993): 조선어문형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문화관광부 (2000): 한국어 문형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2000년도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9-81쪽.
- 민춘기 (1998): 현대 도이치말의 문형 연구 -교육문법과 관련하여. 단국대 박사 학위 청구논문.
- 배해수 (1977): 국어 문형의 연구. 『어문논집』 20집, 민족어문학회, 469-480쪽.
- 배희임 (1985): 국어문형소고. 『어문논집』 24·25집, 민족어문학회, 217-233쪽.
- 성광수 (1971): 국어문형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13집, 민족어문학회, 7-32쪽.
- 이관규 (1993): 기본문형의 몇 가지 문제. 『우리어문연구』 26집, 우리어문학회, 89-101쪽.
- 이광숙 (1994): 한국어와 독일어의 문장모형. 『독일문학』 52집, 459-479쪽.
- 이점출 (2000): 한국어와 독일어의 동사 보충어 및 문형 대조분석 -동사결합가 사전 편찬 및 대조문법 기술을 위한 토대로서. 『독일문학』 76집, 323-355쪽.
- 이점출 (2001): 한국어와 독일어의 형용사 보충어 및 문형 대조분석. 『독어교육』 22집, 219-240쪽.
- 천기석 (1970): 기본문형의 혼란상에 대하여. 『어문론총』 4·5집, 경북어문학회, 103-121쪽.
- Brinkmann, H. (1971): Die deutsche Sprache. Gestalt und Leistung.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Eichinger, L.M. (1995): Unter anderem Abhängigkeiten. Texte, Sätze, Klammern und der Ort von Valenz und Dependenz in einer grammatischen Beschreibung des Deutschen. In: *JDaF* 21/1995. S. 209-228.
- Engel, U./Schumacher, H. (1976):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TBL Verlag Gunter Narr, Tübingen.
- Erben, J. (1972): Deutsche Grammatik. Ein Abriss. 11., völlig neubearbeitete Auflage. Max Hueber Verlag, München.
- Grebe, P. (1973):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 Duden Verlag, Mannheim 1973.
- Helbig, G./Buscha, J. (1986):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VEB Verlag Enzyklopädie, Leipzig.
- Larcher, D. (1991): Fremde in der Nähe. Interkulturelle Bildung und Erziehung im zweisprachigen Kärnten, im dreisprachigen Südtirol, im vielsprachigen Österreich. Klagenfurt/Celovec.
- Liedke, Martina (1999): Interkulturelles Lernen in Lehrwerken Deutsch als Fremdsprache. In: *MDaF* 52, S. 552-577.
- Rieder, M. (1992): "Interkulturelles Lernen" -Einige (Er)klärungsversuche. Aus: Bildungsprojekte der Volkshochschule Ottakring. AusländerInnen, Basisbildung, Zweiter Bildungsweg. Promedia Verlag, Wien.
- Tarvainen, K. (1981): Einführung in die Dependenzgrammatik. Max Niemeyer, Tübingen.

Zusammenfassung

Satzmodelle im Koreanischen und Deutschen im Hinblick auf ihre didaktische Verwertbarkeit

Min, Chun-Gi(Chonnam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die deutschen Satzmodelle für Zwecke des DaF-Unterrichts in Korea untersucht. Dabei gehen wir davon aus, dass man die deutschen Satzmodelle vergleichend mit den koreanischen neu aufbauen sollte, um sie im Deutschunterricht für Koraner recht benutzen zu können. Dafür haben wir hier zunächst untersucht, wie man die koreanischen Satzmodelle im Hinblick auf den didaktischen Zweck modifizieren mus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dabei erzielten Ergebnisses wurden anschließend die deutschen Satzmodelle rekonstruiert.

Im Koreanischen wurden die Satzmodelle ab Ende der 1960er Jahre verschiedenartig untersucht. Zwar gibt es bisher noch keine Arbeit, die die Ergebnisse dieser Forschungen zusammenfasst, dennoch versuchen wir hier aus einigen bisherigen Untersuchungen einen begrenzten Rahmen von koreanischen Satzmodellen herauszufinden. Als Resultat haben wir fünf grundlegende Satzmodelle

hergestellt: (1) Subjekt + Prädikat, (2) Subjekt + Prädikativ + Prädikat, (3) Subjekt + Objektiv + Prädikat, (4) Subjekt + Adverbiale + Prädikat, (5) Subjekt + Obj. + Obj./Prädikativ/Advb. + Prädikat. Das Modell (1) umfaßt drei Prädikate, die sich nach den Wortarten unterscheiden: (intransitives) Verb, Adjektiv und Substantiv. Auch beim Fall (5) können drei verschiedene Untermodelle nach der Kombinationsmöglichkeit auftreten: Sub. + Obj. + Obj. + Präd., Sub. + Obj. + Prädikativ + Präd., Sub. + Obj. + Advb. + Präd.

Auch im Deutschen kann man ähnlich wie im Koreanischen didaktisch geeignete Satzmodelle herausarbeiten. Auch dabei wurden bisherige Untersuchungen zu den deutschen Satzmodellen herangezogen. Zu der dafür ausgewählten Terminologie gehören Subjekt(S), Prädikat(P), Prädikativergänzung(PE), Objektergänzung(OE), Adverbialergänzung(AE). In der deutschen Sprache werden nach den Valenzmöglichkeiten des Prädikativteils folgende Modelle unterschieden: S + P, S + P + PE, S + P + OE, S + P + AE, S + P + OE + OE/PE/AE. Unter die OE werden akk. OE, dat. OE, präd. OE, refl. OE usw. subsumiert.

Um die Stichhaltigkeit der in dieser Schrift neu festgestellten Satzmodelle zu überprüfen, sollten sie anhand eines Textkorpus heutiger Texte in weiteren Untersuchungen validiert werden. Ferner ist es zu empfehlen, die Anwendbarkeit der hier vorgestellten Satzmodelle im Deutschunterricht für Koreaner gründlich zu testen.

[검색어] 한국어문형, 독일어문형, 교육적 활용가능성
koreanische Satzmodelle, deutsche Satzmodelle, didaktische Verwertbarkeit

민춘기

우편번호 : 500-78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상록@ 109동 1002호

전자우편 주소 : chgmin@jnu.ac.kr